

경쟁력 키운 김광수號, 2기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NH농협금융 작년 순익 사상 최고
현장 애로사항 수시로 파악 당부
건전경영 강화, 디지털전환 과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2기 경영이 시작됐다. 농협금융이 출범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고,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등 지난 2년간 성과는 뛰어났지만 2기 경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전성 관리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5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1년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 28일 까지다.

◆ 사상 최대 실적에 경쟁력도 제고

취임 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실적이다. 첫 해인 지난 2018년 농협금융의 순이익은 1조2189억원으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순이익은 1조779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전성도 개선됐다. 농협금융의 고정이자여신 비율은 지난 2017년 1.05%에서 2019년 0.63%

까지 낮아졌고, 총당금 적립률은 2017년 79.7%에서 2019년 107.2%까지 높아졌다.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과 사업구조재편으로 경쟁력도 제고했다. NH농협리츠운용을 설립해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했고, NH벤처투자도 혁신과 농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했다.

그러나 2기 경영 시작과 함께 주변 환경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미 지난 1분기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28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왕대추마을에서 진행된 ‘봄농사기원 농촌일손돕기’ 활동에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 첫번째) 및 임직원들이 고추장 담그기 작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농협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은행과 투자증권의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14억원 감소한 탓이다.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김 회장의 2기 경영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성과분석회의를 겸한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사업영향과 자산건전성,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

을 점검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금융은 지방 네트워크가 탄탄한 만큼 지역단위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리스크 기반 경영관리와 효율적 비용집행을 통해 건전경영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디지털전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농협금융은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임을 고려해 농가 일손돕기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농촌 활성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계열사별 장단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강화해 건전성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업인과 피해기업 및 지역사회에 지원함으로써 농협금융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임 이후 첫 대외활동 역시 농촌 일손돕기로 시작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임직원 봉사단 30여명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왕대추 마을을 방문해 일손을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도 함께 나눴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코로나19와 일손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AI가 수리비도 자동 산출... ‘AOS알파’

사고차량 사진 보고 스스로 판독
정비공장 수리비 지급업무 빨라져

보험개발원은 AOS(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예상수리비를 산출하는 AOS알파(AOS α)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AOS알파는 인공지능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스스로 판독해 예상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험회사는 AOS알파가 제시하는 예상수리비를 참고해 손해사정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범위는 외관부품만 부서진 소손사고다.

보험회사는 예상수리비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보험처리여부 결정을 지원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속한 손해사정으로 정비공장 수리비 지급업무도 빨라진다.

또 이미지 인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AOS알파 카메라도 보급한다. 정비공장이 AOS알파 카메라를 사용하면 차량번호 자동인식은 물론 수리비 청구에 필요한 보험 사고 접수정보, 차량모델정보 등도 자동으로 연결된다.

수리현장에서 휴대폰 앱으로 찍은 차량 파손사진을 보험금 청구시스템(AOS)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다. 수작업 처리하던 업무(차량번호 입력, 사진 업로드)도 대폭 자동화된다.

AOS알파는 자동차보험업을 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이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AOS알파를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자사시스템 연계, 카메라앱 설치, 직원 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AOS알파사용이 본격화되고 5G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AOS알파는 보험회사 보상직원, 정비공장 간 영상통화와 연동해 원격 손해사정이 가능해지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Untact·비대면) 보상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격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면 보상직원이 정비공장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 업무효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신한銀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저작권 등록

3개 외국어로 제작된 교육 영상 등

신한은행이 경제제재(Sanctions) 정책 준수를 위해 제작한 업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등록한 대상은 ▲경제제재 정책 관련 업무 매뉴얼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국내 영업점용 가이드라인 요약본 ▲해외 영업점용 영문버전 가이드라인 ▲3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제작된 경제제재 준수 교육 영상 등 6건이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제제재 정책 준수 관련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재 위반 리

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작년 이란, 북한, 시리아 등 국가에 대한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경제제재 준수 점검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국내외 영업점에 배포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해외 금융당국의 경제제재 준수 점검 대비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한 교육 영상들을 해외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제제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각국의 경제제재 준수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모바일로 24시간 해외송금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액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KB-이지(Easy)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이지 해외송금 서비스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미화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연중 24시간 송금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에큐온이 두산베어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에큐온저축은행 이호근 대표, 두산베어스 전용 대표, 에큐온캐피탈 이종무 대표, 두산베어스 김태룡 단장. /에큐온

무관중에도 홍보효과... 프로야구 마케팅 시동

에큐온, 두산베어스와 올해도 계약
웰컴저축銀, 시즌 활용 이벤트 진행

5일 국내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공식 개막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야구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 TV광고가 제한을 받는 등 규제에 묶여있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는 등 홍보 효과를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에큐온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에큐온이 올해도 두산베어스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선수들 유니폼에도 에큐온저축은행의 사명이 새겨지고 지난해 설치한 에큐온 홈런존도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에큐온은 홈런 타구가 에큐온 홈런존을 넘길 때마다 10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지난해 총 700만원을 지구촌지역아동센터와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농아인복지원에 각각 전달했다.

회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경기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없이 눈에 띄는 광고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도 프로야구 시즌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부터 KBSN스포츠와 운영하고 있는

‘웰벵툽랭킹’ 게임 이벤트를 올해도 이어가는 것.

이벤트는 경기 시작 전 최고의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투수와 타자를 각각 1명씩 선택하는 것이다. 한 달간 선택한 선수가 해당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록 순위가 올라가는 게임이다. 정규리그가 진행되는 매월 한번 씩 당첨자를 선정한다. 게임은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인 웰뱅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의 스포츠마케팅은 야구 외에도 배구,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이어져 왔다. TV광고 규제로 인해 홍보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저축은행이 최근 몇 년 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OK저축은행은 러시안캐시 프로배구단을 직접 운영, 배구단 운영비용만 연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OK저축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주관하는골프대회도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세리키즈 골프 장학생’ 제도를 신설해 골프 꿈나무를 후원 중이다.

/김유진 기자 ujn632@